

음추일언 밝은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기
나니, 거칠은 말과 약한 말로 함
삼 나를 이기고서 하거든, 말에 있어 마땅히 침묵
해야 한다 <법구경·본노름 351절>

東大新聞

발행처	행인	인쇄	민병	천
북부	주	국	차	련
부	집	집	이	만
편	집	장	이	성
			익	중

피 내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770-2057)

제 1148 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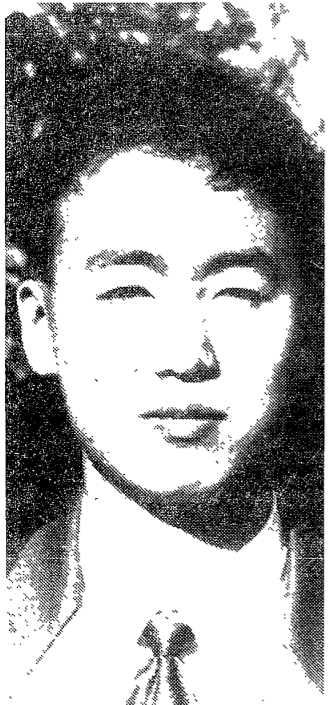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5월11일 (수요일) 11

제26대 총학생회장 사퇴 작년 선거과정중 졸준위 관련 자금유용

지난 9일 총운위 통해 밝혀



◇지난9일 사퇴의사를 밝힌 박현식(전기4) 총학생회장. 선거자금 논란이 사퇴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6대 총학생회장 박현식(전기4)군이 지난 9일 있었던 비상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총운위에서 박군은 '동학의 운동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라는 운영위원장으로 보낸 문건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학생회장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서 박군은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깨뜨리고 이제 새롭게 운동을 결의하는 후배들에게 건강하고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품을 세워주는 일과 일민과 학우들이 학생회를 다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한 과정에 철저히 복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밝히며 "동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남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졸준위 사태에 해결 원칙으로 박군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학우들의 불신을 받는 학생회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이것이 학생운동을 깨뜨리는 매개로 바라봐야 할 것

이며 그것만이 학생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박군은 "매년 학생회 비리의 문제가 나오면 세력간의 이견으로 대립되는 모습을 극복하고 올바른 대안과 계획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로 건강한 학생회 활동이 모두가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학생회장 사퇴배경

박현식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가장 직접적인 사퇴배경으로는 졸준위 사건인듯 싶다.

우선 학생회신회에 흡집이 간 이상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총학생회 일상사업의 부실, 집행부 구조의 불안, 조직내부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선거 당시 학생복지위원회 사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26대 총학생회는 그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확실하다.

이로 인해 대동제, 동국중흥론잔치 등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제26대 총학생회는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졸준위 사건

이 사건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당시 기호 2번 박현식·고정환 선거운동본부의 관계자가 졸업앨범 제작업체인 S스튜디오에서 당선후 졸업앨범 제작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앨범제작 시 나오는 졸업이 사업비를 미리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과정을 제26대 총대의원회 의장 한장섭(뚝문4)군 등이 알고 자체해결을 위한 모임을 구성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징계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운동본부의 사업을 맡았던 일부 제26대 총학생회 집행부가 사퇴하는 등 총학생회 체제가 이완됐다.

사태의 경과

지난 9일 있었던 '94 상반기 학생대표자 회의' 중 한 대표자가 졸준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거과정

중 박현식·고정환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시작된다.

이후 지난 9일 총학생회실에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제26대 총학생회장 박현식군은 사건의 전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날 오후 8시에 열린 비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박군은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불교대학총회장 최정원(인철4)군등 운영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이전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재용(영외4)군은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해결전망

현재 총대의원회 의장 한장섭군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1만 학생들의 손으로 밝혀져야 한다.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건을 감추려했던 총대의원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힌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다시한번 학생회 정파간의 갈등으로 비칠지 우려를 안고 있다. (취재부)

보리수

개종(改宗)과 환종(還宗)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어느때 부처님은 사방타의 기원정사에서 1천2백50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다."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구절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수천명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를 끄는 대목은 1천2백50명이라는 숫자다. 추측컨대 이 숫자는 초기교단의 제자들이 불교로 집단개종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은 교화활동을 편지 열 마디지 않았을 무렵, 마가다의 우루벨라에서 배화교도(拜火敎徒)였던 카사파 3형제를 교화했다. 이들은 큰형 5백명, 둘째가 3백명, 막내가 2백명을 데리고 집단개종을 했다. 이어 산자야의 제자였던 사리풋타와 목갈라나가 2백50명의 추종자와 함께 개종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들의 개종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수천명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불교적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교단의 역사는 곧 이교도(異敎徒)에 대한 개종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포교를 계속한다는 것도 넓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시켜 나가는 노력이 하나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이다. 불교에서 서양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論點)이 있다. 개종이란 여지껏 믿어왔던 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의 전환을 뜻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에서의 '개종'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개종은 개종이 아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환종(還宗)이다. 다시말해 자기가 본래부터 믿고 있던 낡은 신앙체계를 돌아간 것일 뿐이다. 깨달음의 종교로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복행위의 대상으로 믿다가 서양종교로 대상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교가 일주문(一柱門)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환종이 됐든 개종이 됐든 다시 내보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의 은총이나 비는 넓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일은 불교가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천2백50명의 이교도를 집단개종시킨 불교라면 오늘날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포교활동의 부진으로 사람들을 넓은 믿음의 세계로 다시 되돌려 보낸대서야 말이 되는가.

洪思誠

전공과정 시간표 일부 조정 94년 2학기부터 한시간 기준으로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화)는 94년 2학기부터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시간표를 개편한다.

3학년 과목을 예로들면 기존의 경우 2시간, 1시간으로 나누어 강의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올 2학기부터 모두 한시간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교양과목은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양과목 시간표 개편안은 무산됐다.

이에대해 교무과 관계자는 "시간표 개편의 전례는 서강대, 이화여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강의실의 사용효율도 다양화되고 수업효과도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죽원 이사장 금일봉 전달

오죽원 이사장은 개교기념식이 끝난 지난6일 개교1백주년 사업본부측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한 정유무(행정학·정보산업대학원장) 교수는 최근 몇년간의

교원 승진·재임용 평가 기준 발표 대상자, 방중 논문 심사후 확정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화)는 94년 2학기 교원 승진재임용 대상자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승진 7명, 재임용 19명, 승진재임용 12명등 모두 38명인 승진재임용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교무과로서 서류를 제출하고 방학동안의 논문심사, 평가로 확정된다.

평가기준은 크게 △교무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육 △연구및 창작 활동 △교내외 봉사활동의 네가지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육 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수업이행

상태(수업준비, 수업실질도) △강의 효과(학생반응)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진행 실적 △교내외 유명학술지에 논문발표 정도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교내외보직 및 위원회 활동 △학회임원및 학술봉사 활동등이다.

평가지는 심사 대상자 소속대학장이며 소속대학장이 대상자일 경우 부총장이 맡게된다.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1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대상자는 적격으로 판정된다.

알림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대학인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1학년 남·여 재학생
③모집분야: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④제출서류:본사 소장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서울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경주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서울 6월 2일(목) 오후 5시
경주 6월 2일(목) 오후 5시
⑦시험과목:1차 필기-상식, 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 실기)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정액급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한해에 한주일은
넥타이를 풀고 이웃사랑을 배웁니다**

물방울 무늬 넥타이에 무슨 바른 머리로 '나만의 일과 여유'를 소리높여 주장했던 내가 부장님, 과장님, 동료들과 함께 진정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를 한다.

마디 굵은 농부의 빠른 손놀림을 따라하며, 땀방울이 전해주는 행복한 피로를 몸으로 직접 느낀다. 보내기후 탁주 한사발을 권하는 아내의 구수한 눈길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참으로 놀라운 나의 변화.

—현대건설 기획실 신승균 사원(83년 입사)—

現代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 아산재단 : 무료진료사업 ●현대건설 : 농촌 일손 돕기
- 현대전자 : 꽃동네 마을 돌기 ●현대중공업 : 경로친척
- 현대자동차서비스 : 불우청소년돕기
- 인전건설 : 정박어 보호소 위문, 농촌부락 지매결연맺기 등

現代

자유 발언대

교육시장개방, 문단은 대학 재빠른 대비책 마련해야

"1996년 이후 정원자유화... 일부 대학 문단은 부작용 우려돼" "교육시장 개방되면 후발 대학 문단은 상황 아끼기 수도" 교육 관계 기사에서 연일 이러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수 확보율, 2000년까지 70%확보 △교지 확보, 교육시설, 도서관 장서수준정 기준대로 확보할 것 등 오늘날의 사립대학은 이종삼중으로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걸머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수의 자연적 감소로 인하여 1998년에 이르러 입학 정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른다는 여론도 우리를 걱정케 한다. 여기에 덧붙여 4년제 대학을 나온 고등 실업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전문대를 나와 기능을 갖고 산업계에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래저래 이득이라는 요즘의 젊은 세대의 적응성향도 우리를 압박케 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오늘날의 사립대학이 대처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여러 신진교 대학 등에서 대비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생각한 것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범접 정원수 확보, 교지, 교육시설등을 확보하는 문단은 대학의 존립조건에서 최우선하는 조건이므로 이조건을 갖추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과 순서를 고려하고 지금부터 실행하는데 서둘러야 한다.

①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대대적으로 모금하는 일. ② 대학 기금을 대대적으로 통합해서 가능한 한 교육의적인 경성비를 줄이게 하고 정보화하는 일. ③ 대학 경영자는 대학발전에 헌신하는 자세로 미래에의 난국 처지에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일. ④ 대학관계자(교수·직원·학생)는 모를지기 지난 날의 관행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 오늘날의 대학이 놓인 어려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일. ⑤ 교수의 역할은 대학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대학재정과 맞먹는 큰 기둥이 되므로 모를지기 학문연구에 전념하는 일. ⑥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어 졸업 후, 타 대학 졸업생과 경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학에 전념하는 일.

이상과 같은 대처방안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즉 대학재정을 확보하는 일과 교수의 학문연구의 심화 및 학생의 면학에의 정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의 타개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능한 한 외부로부터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과 내부재정의 집합에서 줄이게 한 쪽도 남비하지 않고 앞에서 제시한 대학 존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 전력을 투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모금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학 총장의 역할 수행에서 상당한 시간을 모금을 하는데 할애해야 할 것이다.

실지로 외국의 유명 사립대학 총장은 이에 거의 전력을 쏟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이 인적 경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모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나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몰락기에 그칠 것이니, 1년동안에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도 당장 그 심각성이 피부에 닿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정진 바짝 처리하지 않으면 곧 타락하게 될 난국에 이르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절감하고 대학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신 용 대 (문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발언대는 교수, 직원, 동문, 학생을 비롯한 전 동양인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펜을 드십시오! 학교의 발전이 여러분의 작은 힘부터 시작됩니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졸준위 사업 지지부진 선거투항위원회 구성 시급

매년 오월의 화내는 여러가지 행사로 교정이 밝아진다. 대동제를 알리는 포스터·현수막들 사이로 여름을 성큼 느끼게 하는 옷차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다.

또하나, 어색한 정장차림의 4학년 학생들의 모습이 교정을 더욱 밝게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동양에는 졸업생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의 애국적 사회진출과 졸업이후 올바른 삶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다. 그 기구가 총학생회 산하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준위)이다.

그러나, 졸업준위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올해로 졸업준위는 6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4학년 학생들의 무관심과 이것을 책임진 총학생회의 무능력함속에서 위위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년이면 졸업준위가 4학년 과대표들속에서 인준되어 졸업사건 활동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작년 졸업준위 선거를 준비하던 학생으로서 올바른 졸업준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총학생회 산하기구가 아닌 4학년 과대표들의 선거를 통한 위원회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올바른 졸업준위 위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생각된다.

이 승 현 (공과대 신공학과)

'94 봄농활의미 퇴색 단순봉사활동에 그쳐

제11대 총학이 지켜내자던 계약중 하나인 '94봄농활이 40명이라는 의외로 적지않은 학우들의 참가속에 마쳤다. 하지만 시작전부터 보여준 모습이 단조로운 우렁가 끝까지 이어져 이전 쌀투쟁때처럼 열성을 남기고 말았다. 바로 농민과 학생의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에게 힘이되는 농활의 의의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봄농활은 U-R국회비준, 산업구조조정하의 농업소, 농업정책의 일단 실패를 아주 열악한 현실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기에 이를 바탕으로 기초

와 정책이 잡혀지고 여름농활로 이어지는 전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화원내 어디에서도 이의 내용을 담은 자료·공문을 볼 수 없었고 총학생회 비판자보와 자료집속의 빈약한 글 몇장이 전부였다. 그리고 시가·장소등에 대한 각단위 자치기구의 여론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로인해 시험기간의 절정에 일정을 잡았고, 작년 열천아저씨들과의 약속·신뢰를 깨뜨리고 말았다. 이외에도 선전의 소홀이나 농·준·위구성 포기 등등 크고 작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단지 봉사활동(혹 총학이 생각하는 농활의 위상이 아니길)으로 그친 4월29일~5월1일의 봄농활은 이후 총학에 대한 요구를 요구할 것이다. 두달 후면 달철 U-R국회비준 동의안처리 시기에 떠날 여름농활은 결코 2박3일의 봄농활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이고 올바른 정세판단과 전망 그리고 계획이 필수이며 그에 따른 강력하고 성실한 실천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덧붙여 독단적이고 계층은 사업진행으로 금이 간 학우들과의 신뢰강화책 역시 커다란 숙제가 될 것이다.

배 문 석 (인문대 철학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부위 논란 단순보도 심화된 내용 다루어야

지금의 동양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밝혀져야 한다. 마땅히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학생자치기구의, 화합개선을 통한 직선제에 보여준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총대의 원회에 대한 비민주성은 마땅히 성토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저 논란거리 이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인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5월 대동제가 코 앞에 놓였는데 아무런 기사가 없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느낌 요즘 동양을 다니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번호 동대신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학우들이 농활을 가고 쌀문제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빠져있어 하더라도 꾸준히 수 일개방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텅비어 있다.

유 병 문 (공과대 불교학과 분사모니터)

지면안내 필요이상 중복 취재기사 내용부실 아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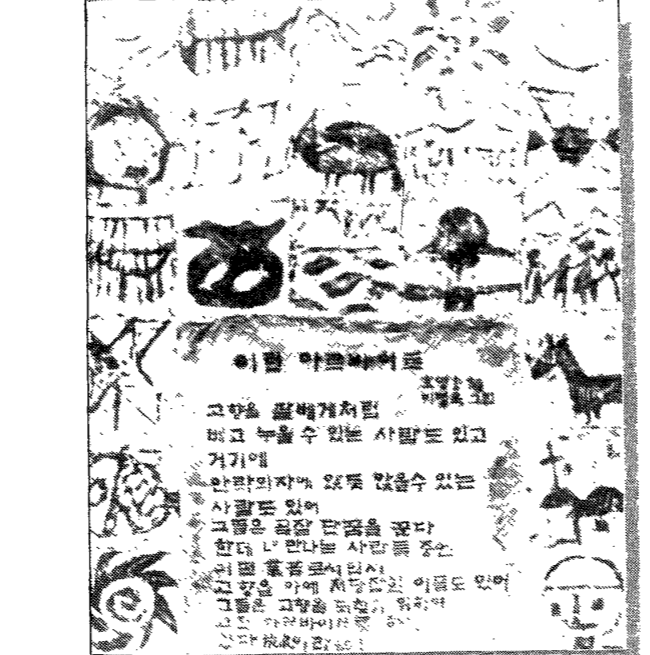
개교 88주년 기념 특집호인 지난호 동대신문의 특이한 점은 간지가 들어간 것이다. 지면이 늘어남과 동시에 취재기사도 많아 발로 뛰는 동대신문임을 확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취재기사의 내용을 보고서 많은 학우들이 실망했다고 한다. 7면에서의 '미정원실치 서명운동'은 이미 설문조사와 대자보 홍보로써 학우 대중에게 다 알려진 것을 반복해서 알리는 것이 되었다. 봄농활기사이에서도 보면 그 실시기간과 주최만 확인된 뿐이지 그 결과라든가 참가인원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9면 특집 기사 면에서는 1면에서 이미 실린 지면안내가 반복되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특집호 지면안내를 자세히 했다는 건 알겠으나,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지면내의 중복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된다.

이 해 원 (인문과대학 철학과 분사모니터)

이런 아르바이트

조대 시파 호영송 시 이병욱 그림



호영송: △1942. 5. 17 경기 파주생 △분교 연영과 수학 △시배우의 노래(1962) 소설 『파리의 반개』(1973) 발표 △저서: 시집 『시간의 줄』(1962), 영송 시집(1965), 소설집 『파리의 반개』(1978) 등

관념(觀念)의 함정

“평지에 서있는 당신이 더 위험하오”

동/문/칼/럼

동네에서 이웃집 젊은 여인이 덧살쯤 난 자기 아이를 혼내는 것을 보았다. 얼마 몰래 사탕을 먹다가 들킨 것이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연신 짹짹 빌지만 노기가 풀리지 않는 여인은 “네, 엄마말 그렇게 듣지 않을려면 집에다 들어오지 마”하고 소리치르고는 이내 대문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기겁을 하고 뒤따라 가지나 “광”하고 대문닫히는 소리가 아이의 울음보를 더뜨린다.

20대 후반의 배웠음직한 그 여인의 회가 난 얼굴은 어린아이가 겁에 질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안타깝다. 무슨 아이 입안을 보니 혀연 으르르 붕을 해 보고 뒀어 썩은 이가 대부분이다. 풍도 돈이려니와 어린 자식의 치아를 온존시켜 주어야 할 엄마로서는 그 결과가 당연히 화를 낼 법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상하기란 할 엄마의 얼굴이 왜 한순간에 아주

무서워졌는가이다. 그 손찌검은 이성적 타이름이 아니라, 먹지말라는 사탕을 먹었다는 결과에 대한 감성적 작용이다. 사탕먹는 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어른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노기서린 무서운 얼굴이 되었던 것이다. 그 무서운 엄마 앞에 선 아이의 겁먹은 표정이 역력하다.

어른의 마음이란 관념이다. 의심할 바 없는 동·남·북·인·방·형성은 상대적 관념이다. 크고 작고 좋고 나쁘다는 것도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건만 사람들은 그냥 관념에 길들여져 그렇게 생긴 가치관으로 세상사를 논하며 판단하고 주장하며 신다. 한정된 테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마땅히 대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져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방금까지는 몸서리거던 아이의 한 행동에 굴복 화를 풀며 자애로운 얼굴은 무서운 마구



니의 얼굴로 만드니 말이다. 중국의 백낙천이 어느날 실력을 과시해 볼 용모로 큰 나무 위에 올라 앉은 당대의 큰 스님을 만난다. “아, 스님 왜 위험한 나무 위에 계십니까?” 스님할 “내가 볼 때는 평지에 서있는 당신이 더 위험하오” 한다. 한번 생각해 볼 대외이다. 임기 준 (불교 72년 영화장세계 삼일부사)

목 먹 골

- 정훈아 네 생일 11일이지? 축하해. - 사회 94일동
- 중수야 여명 가장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해. - 여명 94일동
- 중범아 장학금 축하한다. - 물리학과 94 정해석
- “축” 김영재 뇌수술의 빠른 회복을 축하합니다. - 통계 93
- 5월의 여인, 박미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셋도 없는 친구 미란, 그리나가
- 중범아! 장학금 탄 것 정말 축하한다.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할거다. - 컴공 94 일동
- 8월에 있을 영근이 생일 축하해! - 기계공 일동
- 성영이의 봄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 전산 89
- 5월 22일 전자공학과 '89 이운석군의 생일이다. 축하해. - '89 유·김(울)
- 은영아 너의 성년됨을 진심으로 장미 스무송이와 함께 축하할게 8what? - Your 오빠
- 정훈아 네 생일 11일이지? 축하해. - 사회 94일동
- 중수야 여명 가장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해. - 여명 94일동
- 회계학과가 드디어 joint M·T를 잡니다. 축하해 주세요! - 93학번
- 5월 16일 정수의 생일 축하해 줘요. - 정보과
- 공권, 학술부장 됐다며 축하한다. - 무역일동
- 정훈아 왜 태어났니? - 내가
- 5월 8일 동국대학교의 생일을 축하해요. 국수 세그릇이나 먹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동대 단세!!
- 오늘(7일) 춘미의 생일이예요. 축하해 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애가 없어요. 섭섭하지만 누군가 많이 축하해 주고 있겠죠? 예쁜 춘미야, 생일 축하해. 많이 먹고 예쁘게 자라라. - 국교과의 옛날친구
- 금고고 동문 여러분! 용선(국문 84)군의 결혼식이 5월 15일에 있습니다. 우리모두 참석하여 축하하면서 금고고 동문회도 동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데, 광주는 무엇으로 사는가? 금호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 Y.B.
- 안산, 대원공과 동문찾을(선배포함) 연락바람. - 94 정보관리 N김균명
- 13일에 금요일(대동제 폐막식) 공연에 시나버리와 행패가 출연합니다. 많이 오세요. - 사회과학대 일동
- Fox Hunting 궁금하지 않으세요? 5월 11, 12일 다광관 앞으로 오세요. 상품도 있습니다. - HAM
- 열심히 합시다. 전자전시의 준비에 수고가 많은 후배들이 힘내라. 조국은 너희를 믿는다. - 전일 학회장
- 축제를 맞이하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문화재 사랑방 여러분! 힘 냅시다. - 13기 일동
- 그리고... 잘들 지내라. 나 간다!~ 국문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 국문 92 조
- 사회학과 새날학교 잘되길 빌어요. - Y.W.J
- 5월 15일에 있는 DP고사에 모든 회원들이 합격하길 바래요. - HAM장.

동 / 약 / 광 / 장

- 생 축구대회 우승을 축하한다. - 8기 김철수
- 양순이 윤주의 배꼽생년날을 축하해. - 한문 94일동
- Rain Bow에 입단한 것을 축하합니다. - 93Rah Bow일동
- 공국·L·E·O 13기(은정, 미향, 병섭)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어여쁜 목이가
- 기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태준이도. - 국제경제학과학우일동
- 전동준군의 성인이름을 축하합니다. - 동대일민학우
- 규태, 정이, 우식의 입학기요제 본선진출 축하해요. 꼭, 입선하세요. - 한문94일동
- 의예2(5월22일) 전우선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JJ
- 수학교육학과 예쁜 종희, 생일 축하한다. - 93 아인슈타인
- 5월11일은 우리 귀염둥이 승희(94)의 생일이예요. 축하한다고 오래 살으라고 전해주세요. - 93일동

온 방 골

- 공고(7)의 외인부대 자양농활팀(술생, 강사, 해양부팀, 선연, 춘여학생회, 무소속)여러분 역수로 수고하셨습니다. - 작업반장
- 대구·경북연맹 신악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원을 수고했습니다. - 신악부(장비)
- 제4회 무쇠나팔 정기공연이 성대히 끝났길 감사드리며 가장 수고한 94학원 사랑해. - 영원한 무쇠나팔을 마상 무니
- 알립니다. 94새내기 맞이 언론협의회 공청회가 5월12일 늦은5시에 동대사거리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 제5기 언론협의회
- 영상 전시회 한테요. 꼭 보러와요. - 영상회원
- 열심히 합시다. 예쁜 스미성교생선생님. 교생실습 잘하고 오세요. - DUCC일동
- 그리고... 충수의 으뜸일꾼 김종렬군이 드디어 입대합니다. 고향에도 불구하고 부디 씩씩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 으뜸사랑 합사랑 8기 대방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협점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서 농수산부장관은 다시 소모품신세가 되었다. 협상결과가 실천에 옮겨지면 농민과 농업에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어촌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는 6월 종합적인 농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세갈래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농민에 대해서 정부는 농어민연금제의 조기 실시, 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을 도시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이러한 복지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농민들이 생산의 필요 때문에 분산되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필수조건인 다른 인간과의 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농민에게 도시민과 똑같은 복지수준이 보장된다고 해서 도시와 간 농민이 귀찮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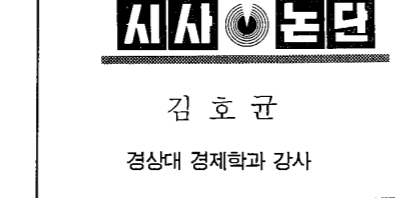
의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교육, 문화, 복지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정부는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골포장, 관광오락시설, 요양시설을 건설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상상이 농민의 생활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자칫 '역만장자 거지'가 양산되는 결과만 초래될 우려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유지는 농촌환경 파괴와 자본에 의한 농촌의 지배를 초래할 뿐이라는 비판도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가지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는 국토의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 나아가 도시인의 재충을 위한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이라는 발상에서 살릴 수 있는 측면은 이것뿐이다.

정부는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영농의 규모화와 과학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비



김호균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향상에 따라 필요해지는 경기변동적 확대는 어느 수준을 넘어선다면 자본주의적 영농을 방해하는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영농이 가족농으로 전환되면서 농업노동자가 대량으로 방출되었고 이는 농업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감소를 뜻했다.

사하는 노동자의 증가라는 것이다. 구미제국에서는 농기계공업과 수리업, 비료공업, 농약공업, 종자개발업, 농산물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취업자의 20~30%에 달한다. 말하자면 농업인구의 감소가 필연적인 추세이지만 이것은 농업관련공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뒤집어놓으면 농업이 없다면 농업관련공업의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당국자들의 잠재의식 속에서처럼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포기한다면 농업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생생적인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철저한 관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오늘날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높다. 이는 농민에게 과도한 토지용역비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고 농업포기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서 농민에게 임대해주거나 산값으로 파는 방식밖에 없다(농민 자신을 투기꾼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처럼 싸게 판 농지는 국가에게만 다시 팔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현정부는 경자유전의 포기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농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는 협업방식도 자본주의적 경영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이지나 부분적인 전담방식에 담보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결국 장기적인 농업전환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된 가족농을 주제로 설정할 것. 이 주제는 농업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도시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에서 1세기 전에는 농업종사자가 전체 경제 활동인구의 80%를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1%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도 영농인구는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농업인구의 감소는 전방적인 역사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시기를 농업인구의 감소에 고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인구의 감소를 일으킨 배경에도 주목할 때에 비로소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란 다음이 아니라 농업관련공업의 성장과 이 공업에 종

경자유전 원칙 관철만이 농업 살릴길

URE타결 이후 정부의 농업 전략

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 전략적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과정에서 농민의 희생 위에 재벌을 배분하는 기존의 관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수입가격이 8백70만원인 톨바인을 농민이 1천9백70만원에 구입해야 한다면 기계화는 농민에게 축복이 아니라 멍에가 될 수 있다.

초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농업이 이윤목표를 실현해주는 산업부문으로서 그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간의 될 3, 4층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얼마간 꾸러진 공간재배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가능성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한다. 동국대농촌문화관에 효율적인 면을 극대로 고려해도 40여개 교수연구실 밖에 옮길 수 없는 상태에 3, 4층(6백여평) 공간을 도서관에서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서관 측은 근본적으로 신축이 고려될 수 없다면 이 방안에 학교당국의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다. 지금 상황에서 특정인들의 주도 아래에 있는 학생회 개혁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과 학생회 개혁을 위해 1만 모두가 일어서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해결을 위해 풍부한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도서관을 진단한다

장서실태와 학교행정 ①

단기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는 현실

수년동안 학내구성원들은 도서관의 혁신을 부르짖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 장·단기 발전계획은 시원스레 제출된 적이 없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학교행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지 도서관 보도가 계속되면서 일련 장·단기 계획의 필요성이나 사안별 대책방안 강구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도서관임실태 보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근본적인 여건'을 위한 결단(을 학교당국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 실태와 학교행정'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최소한 이렇기엔 방만한은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도서관 임비를 비롯한 장서확충(단순증가가 아닌)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결국 근본문제는 학교당

국인 일한 행정태도(대화평가제점수확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도서관임비를 확대할 필요없다는 등)나 도서관의 체념하는 듯한 요구자세(예산없어도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다는 사고방식)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장서실태와 학교행정의 마지막인 이번 기사에서 다뤄질 장서비치 공간문제도 학교행정의 근본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않는 이상 의미가 없을을 밝혀둔다. 물론 도서관 모든 문제가 그러하다.

책 뇌물 공간 없다

공간문제는 도서관의 핵심문제이다. 도서관 공간문제는 열람실 부족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장서 개개실 공간확보와 서고공간확보를 중심으로 다루려한다.

본교 도서관 대출률은 하루 1천 권정도다. 전편 개개실이 아닌 타학 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개개실의 범위가 좁다 넓혀져 전편 개개실로 간다면 도서관 대출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공간이다. 매년 새로 도서관을 할 때 서가정리가 이루어진다. 낡은 책과 시류에 뒤쳐진 책은 도서관에서 구별해 서고로 보내고 개개실에 비치할 도서를 새로 선정한다. 결국 서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서고로 보내질 책은 늘고 한정된 개개실 서가는 확보해야 할 1/3 공간(새로 들여올 책을 위해 비워야 하는 공간을 유지할 수 없어 백백해 줄다.

도서관측은 공여지책으로 여분방화중에 서고공간정리를 계획하고 있다. 교직원, 대학원생등도

이용이 허가되는 서고이지만 이제 여분방화 서고정리가 마무리되면 서가사이로 이용자가 들어설 틈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서고활용공사도 2,3층 함께 진행하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 탓에 2층만 진행될 예정인데 서가 45개 구입을 위한 예산 말고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없다.

개개실을 확대하긴 해야겠는데

서고가 한정되어 있으면 개개실도 확대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법 하다. 하지만 현재 개개실 개개실로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먼저 6단 서가 맨아래에는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책을 꽂지 않는다. 1/3 빈공간확보도 유지하려 애쓴다. 때문에 서가하나 더 비치할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용자 불편을 초초하는 일이다. 6단서가가 각각 2m, 1m80cm이기 때문에 위로 몇단 올려 배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공간 해결방안 없나

있기는 하다. 도서관측은 동국대 슬론화관이 준공되면 교수연구실이 20여개가 옮겨갈 예정이고 따라서 도서관 옆건물인 교수회관의 일여

공간이 될 3, 4층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얼마간 꾸러진 공간재배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가능성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한다. 동국대농촌문화관에 효율적인 면을 극대로 고려해도 40여개 교수연구실 밖에 옮길 수 없는 상태에 3, 4층(6백여평) 공간을 도서관에서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서관 측은 근본적으로 신축이 고려될 수 없다면 이 방안에 학교당국의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장서문제, 개개실, 열람실 확충이 모든 문제가 골 부족한 공간에서 기인하므로 해결방안은 이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대대 도서관측도 학교당국도 삼중중심의 사전교섭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공간'이니만큼 서고가 드러내놓고 학내구성원과 함께 심사숙고해물 자리가 공식적으로 마련될지 바라

공개강연

수도에서 득도까지

보통사람도 득도할 수 있습니다. 불노불사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선도의원!

求道(구도)를 통하여 육체와 정신의 완성을 이루고 의식개혁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이루어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수양단체입니다.

수련단계

1단계: 득도의 핵심 2단계: 참수행의 길

3단계: 대도수행 4단계: 대도입인

수련에서 득도까지 전과적지도 부원장수, 불노불사, 수행법 안내, 생사해탈 및 영생의 길 수련

수련성 모집

求道(구도)를 통하여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창조할 신념과 매기를 갖춘 인재를 모집합니다. 수도는 생노병사에서 벗어나 천만겁의 대자유를 찾는 공부입니다.

강의안내

장소: 서울형촌사회관 (TEL: 267-2113)

일시: 5/21~6/13 매주 수·요일 (4주 8회)

(토) 오후 3:30~4:30, (수) 오후 7:00~8:00

● 무료 공개강연: 5/21(토) 오후 3:30 ~ 4:30

인간연성과 민족구원의 수련도장

太乙仙道會

T. 780-2207 ~ 8

제4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생활속의 꿈을 키우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낌없이 공모하오니 폐기와 역량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주제: '다름'을 다스릴

-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금융사회의 사회적 금융활동 개발 및 발전방안
- 고객행위의 효율적 관리 및 방안
-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라스크 관리방안

2. 공모요령

- 공모대상: 전국 대학(원)생 대학원생
- 공모기간: WORD PROCESSOR로 A4 용지 30매 내외 (2004 원고지 100매 내외, A4 용지 3매 내외의 요양면 별도 첨부)
- 공모마감: 1994. 5. 31
- 당첨비율: 1994. 5. 31
- 당첨방법: 당일 발표 및 경선제로 진행
- 인당 응모논문 수 및 2인 이상 공동응모 제한 없음.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종합기획부 한상순담당자 앞

3. 상금 및 시상

- 최우수상 1명: 300만원의 상금
- 우수상 2명: 각 150만원의 상금
- 기타 상 5명: 각 60만원의 상금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모의상임위원이 상금은 우수 개별 통보함.

4. 특 점

-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당해 발행을 위한 경우 특별한 권유사항이 없는 채로 응모 시 수상

5. 유의사항

-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하공용서 1부 부부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 당첨자의 저작권은 당해 소유함.
- 응모권이 통용되는 공모제도로 확인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특히 당선으로 확정된 후의 당선자 확인된 때에는 당선 취소 있음.
- 기타 사항은 현상논문발표장제에 문의 바람. (☎ 317-2598, 2602)

SAM YANG GROUP

창립 7주년 1927-1994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 주식회사삼양사 · 삼양중공업주식회사 · 삼양도당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삼양건설주식회사
- 전북부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삼양에디터 · 다산 신문 파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명회 · 수련장학회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 계 학
주소	(우: -)	(우: -)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제품 및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참여와 답변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① 경제적 안정 ② 사회적 체면 ③ 자아실현 ④ 사회에 봉사 ⑤ 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정직군은? ()
 - ① 일반기업체 ② 국영기업체 ③ 금융계 ④ 언론계 ⑤ 공무원
 - ⑥ 연구기관 ⑦ 교육계 ⑧ 자영업 ⑨ 전학 ⑩ 결혼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은? ()
 - ① 성장성 ② 안정성 ③ 급여수준 ④ 회사규모 ⑤ 최고경영자의 면모
 - ⑥ 선배, 연고 ⑦ 승진속도 ⑧ 사풍 ⑨ 업종 ⑩ 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을 맡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십니까? ()
 - ① 기업광고 ② 기사 ③ 제품 ④ 선배, 친지 ⑤ 기업설명회 ⑥ 전문업체
 - ⑦ TV, 라디오광고 ⑧ 산업시찰 ⑨ 산학제도 ⑩ 사육위
5. 삼양그룹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6. 삼양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그 이유는? ()
 - ① 회사의 견실성 ② 대외적 공신력 ③ 노사화합 ④ 지속적 성장
 - 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⑥ 인화적 회사 분위기 ⑦ 주위사람의 칭찬
7. 삼양그룹의 제품중 두가지를 어느대로 쓰시요. ()
 - ① ()
 - ② ()

* 응답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선착순 2,000명에게는 소정의 참가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고, 이하는 별도로 250명씩을 추첨하여 고급기념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받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 르 는 선)

■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해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우편번호 110-725 서울 중로구 연지동 263번지 삼양빌딩 (주)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 접수기한: 1994년 6월 10일

전환기에 놓인 민족의 운명 진단과 민족 민주운동의 방향

제2의 개항 UR, '국민적 선택'의 문제

국제화·개방화 논리로 국민생존권 위협... 김정권 업적

개방의 태풍이 몰려온다. 우리의 허약한 자본주의의 토대와 산업구조 조정유도가 아닌 재벌의 무한정 이윤추구에 사용되었던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책 아래서 '개방'의 산은 높기만 하다. UR의 타격은 우리경제의 예측불가능과 민족 자본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우리의 경제와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힘 시점과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원집자)

현정부의 무능력

약 8년여를 끌어 진행되었던 UR협상이 종결되었다. 협상의 전과정에 국민적 우려를 지니고 보다는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무능력과 저자세로 일관했던 김영삼정부가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핑계했다는 진실은 절기한 국제화, 개방화논리 속에서 이 제 국민에게 알려지지 시작하고 있다. 후진·개도국의 일방적 회생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의 힘에 밀려 나라를 예속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말이나 불법한가?

정부 스스로도 UR을 제2의 개항이라 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개항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렸어야 했고 마땅히 국민의 뜻을 묻고 이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개방에 대해 현정부는 무지한 산술계산만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2천 년까지의 농가피해액 12조7천억원 (농촌경제연구원 추산)보다는 2004년까지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1백44억 3천만원 (대외경제연구원 추산)이 크지 않은가?" 힘에 밀려 시장을 내어주고도 부끄럼도 없은듯, 무지한 산술계산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GATT를 탈퇴하지는 말아야"며 협박을 해대는 정부의 행태는, 이 자체만으로도 매국의 첫째 징

후로 받아들일만 하다. 그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곧 진입할 우리가 B.O.P(국제수지 적자극 예외조항)해택은 창피한 것 아니냐며 여론을 조작하거나 그마저 결국 실행(B.O.P. 졸업)하고 말았다. 그럴수도 있겠다 하던 국민들은 경제대국 일본들이 우리의 함께 B.O.P.를 졸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정부에 민족의 생존권과 장래가 걸려있는 UR의 문제를 맡길 수 없음을 자명하다.

우리도 잘못된 건 잘못한 것이다. 'GATT탈퇴=나라가 망한다'는 등식을 틀어막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국제화·개방화논리에 맥을 못추었음이 사실 아닌가? GATT를 탈퇴하고자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UR개방의 그 결과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질 의사와 능력도 없다는 점이고, 그 결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절대당위로, 필수불가결의 문제로 인식되어있는 개방의 문제는 이제 '국민적 선택'의 문제로 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UR굴복의 전제조건

남한사회는, 해방후 미국의 주도로 급속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양적팽창을 위주로 하였고 그 결과 제국주의 경제구조에 전면예속된 구조로 발전하였다. 그 현상으로 '기술과 자본의 종속'문제를 들 수 있는데, 남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결코 이런 종속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그러면 먼저 '기술종속'문제를 컴퓨터산업으로 예로들어 살펴보자. 컴퓨터 산업은 크게 저부가 가치분야인 퍼스널 컴퓨터, 칼라모니터 등의 주변기기 생산과, 고성능 워크 스테이션, 중·대형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고부가 가치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가 가치분야에서는 선진기술대비 50~70%정도의 성장률이었지만 고부가 가치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20%내외로 크게 뒤처지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가치제를 수입하거나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등 선진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산업이라 일컫는 첨단산업-반도체, 유전공학, 우주항공과-뿐만 아니라,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0년 현재의 기술도입현황을 보면 미국에 1천8백26건에 22억9천만달러, 일본에 3천5백36건에 15억3천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기계 29.1%, 전기·전자 33.3% 등으로 자본재와 수출주요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을 주

도해왔던 전자·자동차 산업은 물론 미래형 첨단산업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예측불가능과 경쟁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기 보다는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제국주의가 사상산업·공해산업 이전을 시발로 저부가 가치 산업의 이양을 추진하고, 이에 의해 우리같은 개도국에서 양적비약을 이룩하였지만 그 결과는 저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술의 전면적인 종속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본의 종속 문제도 이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수출주력 업종으로 정부가 온갖 특혜를 주고있는 전자산업을 예로 보자. 가전3사중 럭키금성의 자회사의 실적을 보면, 금성 광통신(미국 A&T사 50%), 럭키 DC 실리온(미국다우코닝 50%), 금성 마이크로 닉스(일본의 대일본 스크린 20%), 금성 하나벨(미국 하나벨 40%, 일본 아바타케 하나벨 10%), 금성 소프트 웨어(이탈리아 알라벤티 45%)에서 보여지듯 자본의 종속 또한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는데 이는 비단 금성이라는 한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우리 대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면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로 파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의 실제 지배주주는 드러나지 않은 이데 외국자본, 특히 미국 자본인 것이다.

최근에 일부 전자산업에서 외국자본의 지배가 후회하는 듯 하지만, 그것 또한 저부가 가치분야에서 손을 떼고 고부가 가치분야로 옮겨가는 제국주의의 이윤추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 보자. 수출주력 업종인 자동차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은 미-일-한 3각관계(수직적 분업체계)로 성장해온 대표적 산업이다.

클라이슬러-미쯔비시-현대, GM-이소츠-대우, 포드-마츠다-기아 등의 관계에서 미국업체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지적재산으로 돈을 벌고, 일본은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완성차의 가공조립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가 86년 10월 전륜구동 소형자동차의 제조기술을 도입하면서 10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경상기술로 차 1대당 2%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국산차라고 타고 다니지만 차를 구입할 때 외국 자동차제비에 얼마간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과 기술 종속의 현상은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만하다. 이처럼 세속화된 한국경제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한층으로 하고 매관제배와 현정권 조처도 스스로 최대의 이윤만을 좇아 운동함으로써 현재에도 계속 예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UR은 이런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낼 수 밖에



△정부의 적극적 재벌지원은 산업구조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무한정 이윤추구에 사용되었다.

스스로 걸어차버린 자립화의 길

무한정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재벌의 행태를 저지하고 개방압력에 대항하여 기술개발등을 강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특이 6공때 제기되었고, 재벌규제를 둘러싸고 6공말기에 한때 재벌 정부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었다.

김영삼 정부는 현재까지도 제인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오지만, 지금의 수준은 6공말기의 재벌규제 수준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재벌에 대해 적극적인 특혜를 주고있다. UR에 대비한다면 은행을 미리 재벌에 넘겨주고, 국가기간산업인 제2이동통신사업도 재벌에 주는 등 UR대비 재벌이라 도 살리기 작전을 감행하고 금융실명제 완화등 재벌에 대한 경제규제를 거의 해제하라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회폐는 6공 이상으로 적어대는 등 물가인상을 통해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놈 해먹기전에 너희부터 해먹어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김영삼 정부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매관제배 살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특혜에 힘입어 재벌은 기술개발 경쟁력있는 형식일뿐 실재는 생산시장을

속수산물 유통시장등 중소기업 유통시장까지도 장악하려 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91년 한해의 한국경제는 GNP의 6배이고 부동산투기를 통해 평균 이익이 GNP의 38%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3.5%에 비추어 기하학적 우위체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김영삼정부는 올해는 노사분규가 없어야 한다는 국제화·개방화논리를 들며 고도인플레이션을 내세워 국민에게 91년 경제 4개부분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12조원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해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이 1조2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김영삼정부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김영삼 정부가 UR시대에 한 업적이란 것은 국제화·개방화논리를 들며 이데 국민의 생존권을 내어주고 매관제배만을 살리기로 결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재국주의의 자본의 공격에 들어 스스로 마름이 되길 자처한 현정부의 반민중적행위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언젠가 외국으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결정의 주도권을 뺏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민족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사회부)

동약로

시작을 잘해야...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백상탑 앞. 학교버스가 세워진 채 몇몇의 학생들이 무리를 이루고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중간고사도 끝나고 축제준비로 학내 분위기가 한창 들뜬 가운데 40여명 남짓한 이들은 경쟁대에서 열리는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 출범식에 참석자 모였다. 행사 몇주전부터 대자보나 포스터로 대경총련출범식 참가를 홍보했으나 정작 주인공이아닌 총학생회는 축제준비로 분주한터라 회장과 집행 1명이 얼굴을 보였고 인문대의 경우는 시기에 어긋난 농활을 기획한 터라 대형버스 가 썰렁해 보이긴 했다.

오후 7시쯤 어둠이 채 깔리지 않아 도착한 경북대집회장은 행사의 시작을 도모하는 문선대의 울동으로 다소 활기차 보였다.

영남지역 14개 대학에서 모였는 2천여명의 학생들이 제각기 화교깃발을 앞세우고 줄지어 앉아 출범식에 참가했다. 애국하는 조직, 15만 청년학도의 조직인 대경총련출범식장은 각대학 총학생회장의 선두구호와 함께 펼쳐 온



드는 팔과 박창하는 목소리로 한층 열기가 고조되었다.

행사중에 각 단체 명의의 유인물이 여겨지거나 배포되고 있었다.

밤 12시가 가까와 오도록 참가한 학생들은 보고, 듣고, 외치고, 결의하며 동참할 뿐이었다. 당초

의 시기에 맞는 단 몇가지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출범식 자료집은 커녕 1년 사업이나 한총련출범식때의 대경총련 부분별 계획등 사소한 것의 구두 설명조차 없었다.

반대! 반대! 김영삼정권 반대! 반대! 미국놈들.

짙어질 듯한 음성, 짙어지는 분노와 투쟁의 상징으로 혼드는 팔을 앞세워 정리되지 않은 출범식을 정리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지를 허성만 대경총련 의장의 18번곡 '해변의 여인'이 전회장에 흘러나와 다소 슬렁거림을 연출했다.

출범식 반지리의 썰렁함보다 계획 없는 제5기 대경총련의 사업은 출범식 마감을 공허하게 했다. (김덕실 기자)

94학년도 후기 동국대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미술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3.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영어, 전공, 구술고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과정

1) 시험과목: 영어, 전공(공통, 세부전공), 제2외국어(해당 학과에 한함), 구술고사
2) 시험내용: 가) 영어 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제2외국어 부과과목: 인도철학과, 불교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 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법어, 한문 I, 한문 II(불교학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 I은 철학과(동양철학전공) 한문 II는 불교학과 지원자에 한함)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94년 5.30(월)~6. 9(목)
나. 원서접수기간: 94년 6. 7(월)~6. 9(목)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4. 6.17(금) 10:00 동국관

전화: 260-3093, 3094

불교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①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30(월)부터 6.13(일)까지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7:00까지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월16일(목)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5. 특전

조계종 재계승려, 교원 및 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관리자 과정◇

①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승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실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②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 동일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17(금) 13: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260-3097.3098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공행정, 인문공공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④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2.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6.1(수)~13(일)본 대학원

(단 토요일·일요일은 휴무)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필기시험, 구술시험(영어) 및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전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수료율 30%)
② 우등학생,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등 다수 장학 특권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졸업자는 1급 복지사자격을 취득

◇관리자 과정◇

①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각급의 영관이상 장교, 정부부처기관의 임원,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6.1(수)~6.21(화) 본대학원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6.25(토)14: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260-3101.3102



○일제잔재를 법문화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함은 현실을 볼 때 알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 및 법적 잔재의 청산이 좌절되었던 해방 후의 역사와 그 실태로 말미암은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문제를 알 수 없다. 일제 잔재청에서 가장 그 뿌리가 깊고 문제성이 많은 것은 법률제도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병형 문헌'과 '법원 문헌'은 넘지 않는 것이 상팔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 지닌 진실성을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관청문헌이나 경찰청구에서 실감하고 세금징수의 위력에도 초라한 소시민

서평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한상범 저 청산해야할 친일 일제잔재 다뤄

으로서 담하며 새삼 인식한다. 그동안 일제 잔재에 대한 문제의식은 예전과는 달라져서 학적 업적도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다. 친일파에 대한 인문 연구의 정리가 그 하나이다. 그와 함께 이 방면에서 제도나 인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좀 더 전문적이면서도 일반인의 생활 문제로서 제기해 주는 성과물을 기대해 왔다. 여기서 한상범 교수의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는 주목되는 저서이며 또 충격적인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한교수는 일제 법학과 그사상의 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해방후 지금까지 한국법학계의 일본책 뼈저리게 대해 과감한 폭로를 하여 문제 제기를 해 온 학자이다. 이 책에서는 일제 잔재를 법문화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법문화가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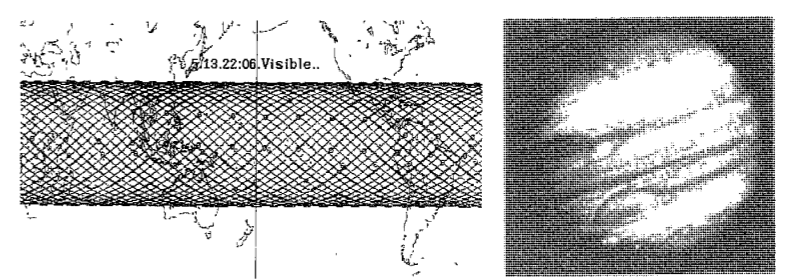
를 규제하는 권력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생활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여는글'에서 우리는 왜 일제잔재를 문제삼는가 하는 점을 다시 정리해 보이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제1부에서는 '일제 식민주의의 정신적 뿌리와 사회구조를 대상으로 해서 1.친일 반민족 반민주 세력의 계보와 사회적 구조를 비롯해 2.어문정책과 일제잔재 및 3.헌법정신과 일제를 다룬다. 제2부에서는 '한국의 법문화에 끼여든 일제잔재'를 다룬 것으로서 1.아시아에서의 법제대안화를 비롯해, 2.인권보장과 일제잔재의 영향 등 일제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면서 '반공주의'가 친일파에 의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으로 쓰인 것까지 소상하게 문제를 파헤친다.

제3부의 '일제잔재와 한국사회의 뿌리와 뿌리'에서는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를 조명하며, 특히 군정하의 법치주의를 망친 '정치판사'와 '어용교수'문제가 대담하게 지적되고, 4.문민정부의 개혁과 법치주의에서는 '문민'이란 것이 될 수 있는 여건과 법치의 과제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4부 '일제유산과 친일법조인의 프로파일'에서는 일제하의 친일법조인법조인과 해방후에 이어지는 친일 법조인과 법학자의 반민주적·반민족적 어용성이 특정한 행적을 통해서 폭로되어 문제를 제기한다. 한교수가 다른 문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이고, 과거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로서 청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여저라고 하였다. 한교수 자신이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이고 친일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민주화를 위한 이론적업에 일찍이 수고해 오던 운동가이기 때문에 그의 저서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해서 더욱 실감되는 점이 있다.

양승두 (연세대 법대 교수)

과학 에세이 목성의 관측 우주로 향한 인간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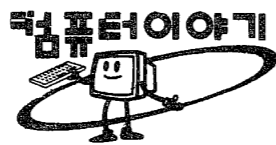


동양의 어느 조용한 잔디밭에 누워 맑은 밤하늘을 바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들 사이를 길게 스쳐 지나가는 유성파도 같은, 그렇지만 빛깔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지평선쪽으로 가버리는 별(彗)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랄게도 그런 대 부분 인공위성이다. 동양을 거닐다 우연히 별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별들(인공위성)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정지위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찾는다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위의 왼쪽그림은 "인공위성 추적 프로그램"으로 추적한 허블우주 망원경의 궤도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5월13일 저녁 10시 쯤에 우리 나라의 남쪽 하늘을 낮게 지나가는 허블망원경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천체 관측에 익숙한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다 우연히 지나가는 인공위성을 망원경으로 보게된 재미난 경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다. 군사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수리한 허블망원경이다. 지상에서의 별 관측은 대기의 상태에 따라 매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명한 화상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는 거의 진공이므로 멀리 있는 별들이라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허블 우주 망원경은 실로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오리온자리의 오리온 대성운에서 2개의 태양계가 생성되는 사진을 보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허블우주 망원경 이외에도 보이저호와 같은 태양계 탐사 위성들을 만들어 우주에 보내왔다. 차츰 차츰 우주의 신비는 벗겨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의해 더욱 미궁에 빠지고 있다. 인류의 발에 대한 관심은 그 오랜 이전 부터 있었고 미래에 그 화려할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 했듯이 별탐사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 본다. 요즘 동양의 하늘에는 저녁 8시 반이후 부터 별의 별자리인 처녀자리의 스피카를 지나치는 별의 축하 폭죽인 가장 빛나는 별(목성)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서있는 보살님"과 "연꽃"의 중간지점에서 중앙 도서관과 명진관 사이의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 별들에서 가장 밝은 별이 바로 목성이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는 처녀자리의 스피카이고, 그 왼쪽 위

는 목동자리의 아르쿠루스이다. 목성은 태양에서부터 7억8천만km, 즉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5배되는 거리에서 태양을 끼고 돌고 있다. 9개나 되는 태양계의 가족(대형성)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행성이다. 질량은 지구의 3백18배나 된다지만 그래도 태양의 1/1000밖에 되지 않는다. 크기도 지구의 11배나 되지만 밀도는 반대로 지구의 1/4밖에 안되며 물의 1.34 배 정도이다. 목성은 하도 커서 작은 망원경으로 보아도 아름답고 푸른 오렌지색의 줄이 생긴 무늬 모양이 보인다. 좀 더 큰 망원경으로 1~2시간 보면 그 무늬가 차츰 차츰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목성의 적도 보다 남쪽인 이른 바 대적반(Great Red Spot)이라는 것이 서서히 지나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대적반은 지구를 2개나 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 목성의 자전주기는 지구보다 너무나 빠른 9시간 50분 30초정도 이다. 그리고 대적반의 움직임과 함께 목성이 달 역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개의 망원경으로 보면 4개의 위성이 보인다. 이것들은 1610년에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자마자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이다. 이 갈릴레오의 딸들은 목성으로 가까운 순서로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및 칼리스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특히 이오는 보이저 2호가 이오의 화산활동을 포착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보이저 2호는 그 외에도 목성의 위성이 총 16개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위의 오른쪽 그림은 목성의 사진이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빠르게 돌고 있는 위성은 오늘 저녁엔 목성의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망원경으로 목성의 띠와 거의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날아서서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나머지 3개의 위성들을 볼 수 있겠다. 조만간에 우리는 팔정도에서 목성과 달의 공개 관측회를 할 것이다. 망원경으로 목성의 옆은 3개의 띠와 일직선으로 길게 반짝이면서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들, 그리고 지난번의 '달 이야기 1~2'에서 설명한 달의 크레이터들을 직접 보게 될때, 우리 동국인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아니, 당신의 그 첫머리는 무엇이 될까? 다음은 '별탐사'의 필수 7인 "망원경에 관하여"입니다.

정성욱 (지역과학연구회 천체분과)



멀티미디어의 응용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마우스나 터치스크린으로 한층 쉽게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기도 한다. 멀티미디어는 교육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이 많은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일정한 학습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지만 받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수 밖에 없었다. 저작도구로서의 멀티미디어는 화상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정보를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다양하게 반복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화상회의, 게임등 생활 전문분야에 활용

한다. 국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영어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용 멀티미디어 제작이다. 특히 교육과 오락을 합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작품들이 저학년 아동용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컴퓨터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여 텍스트, 그래픽, 도표 등을 적절히 혼합한 브리핑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분야도 멀티미디어 활용분야로 손꼽힌다. 고속 네트워크망을 통해 원격지의 사람이 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율동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된다.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출판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수십의 백과사전 1집이 움직이는 화상을 비롯하여 각종 이미지 포함 CD-ROM 형태로 제작되고 일간지 1년치가 역시 CD-ROM 한장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 오락 및 게임 분야도 멀티미디어 활용의 좋은 타겟이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응용범위는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그 만큼 어떠한 것을 개발한 선택의 폭은 넓은 것이다. 멀티미디어 응용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또 하나의 컴퓨터 CD-ROM과 접목된다. 다음 호에는 가상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지동철 (대전교육출판전산연계실·컴퓨터공학과 94졸)

'부처님 오신날' 맞이 법정스님 초청 강연을 듣고

"지혜와 자비를 맑고 향기롭게....."

하며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복 행복해진다"고 덧붙였다. 후렴지근한 열기가 가득한 중강당에는 채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2,3층의 창문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경청하는가 하면 녹음하는 사람, 한자라도 통질세라 바쁘게 받아적는 이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법정스님은 "지금은 대학의 차등이 없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제 학구적인 생활을 창조적인 삶으로 개척해야 한다"며 "창조적인 삶은 전통또는 지나간 기억에 예속되지 않고, 선입관없이 받아들이는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일이 맞는 편이 없으면 편에 입을 맞춰라"는 얘기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물음속에 지혜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법정스님, "지혜와 자비를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기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

를 지었다. 법정스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소감은 한결같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얘기를 한다. 끝까지 경청한 이저서 한분은 "스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황무지에서 씩씩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강연후에는 법정스님과 더불어 참석자들이 차양에 맑고 향기롭게 연꽃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평소애 신실한 불자로 알려진 국회의원 강부자씨는 "자비를 실천하고자 했던 석가모니가 가장 먼저 환경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모음이 진작부터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지난 해 법정스님의 발의로 운동본부를 구성 올해 1월부터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 운동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스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로 9개항의 세부적 실천사항이 덧붙는다. 그래서인지 교계에서 제안하는 최초의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종교와 종파를 떠나 법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운동 본부는 홍보용 5종의 '연꽃스티커'를 40만장 제작 보급했으며 이번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을 대도시에서 지나가는 차양에 무료로 스티커 부착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진흥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청정하게 꽃피우는 연꽃의 맑고 향기로운이 우리상에 깊숙히 침투되기를 빌어본다. (김소영 기자)

학교 각대학원 학생모집

경영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경제학과:산업경제, 금융 및 재정
②무역학과: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험 및 해운, 무역경영
③경영학과: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④회계학과: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⑤경영정보학과: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⑥노사관리학과:노사관리
⑦부동산학과:부동산
 -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25(수)~6.3(금) 11:00~17:00
(단, 토·일요일은 교부만 함)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논술형(경영학원론) 및 면접
②연구과정:논술형 및 면접
 - 특전**
①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②조계종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전화:260-3105, 3106

교육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②교과교육학과: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영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
 -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23(월)~6.3(금) 10:30~17:00
(단, 토요일은 휴무)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전공기술시험
 - 특전**
①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조계종 재적 승려등은 장학금을 지급함
②공사립교육기관 재직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평점시 가산점을 부여함
- 전화:260-3109, 3110

정보산업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①정보전산학과:정보관리, 전자계산
②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 출판잡지
③정보통신학과:정보통신
 -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5.23(월)~6.3(금) 10:00~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필기시험(전공) 및 면접(구술 시험)
②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①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 국영기업체 종사자에 각종 장학금 지급.
②출판잡지 전공자에게는 범우출판 장학금 지급
③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관리자 과정◇
1. 지원자격: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94년 6.11(토) 14:00 서류접형 및 면접
- 전화:260-3115

산업기술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산업과학과: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 재료공학
 -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6.1(수)~6.15(수)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①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력자는 전형시 우대함.
②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③제학사 중장장학, 우등장학, 외국인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④해외 자매결연 대학 등에 연수 기회 제공.
- ◇관리자 과정◇
1. 지원자격: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기타 이와 동등한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석사과정과 동일
- 전화:260-3602, 3603

지역개발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
 -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6.7(화)~6.16(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력자 전형우대
②공무원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지급
③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 ◇관리자 과정◇
모집인원:50명 내외
1. 지원자격
①고졸이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②항의 자격을 고려한다.
③자격요건:정부 자 기관의 관리직급 공무원, 정부부처지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전형일시:연구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 전화:(0561)770-2091~3

지난 겨울방학을 맞아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여행할 수 있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San Diego대학(U.C.S.D)이 주최하는 '94한국문화축제의 강연회에 초청되어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San Diego는 첫 기차지 LA와는 사뭇 다른 차분하고 안경된 도시였다. 강연은 2월1일 저녁을 기하여 마감되었지만 다음날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대학내에서의 미아가 되다시피한 캠퍼스의 광활함에서였다. 대학본부를 물어도 학생들조차 내 서번의 중첩에 몇백을 웃는 나고 되돌아올 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별수없이 터워형으로 된 위압적인 도서관의 최상층에 올라가서야 겨우 캠퍼스와 도서관의 분위기를 새롭게 읽을 수 있었다. 매층 사방의 중첩을 바라볼 수 있는 도서관의 폐쇄함과 함께 전원의 아름다움 캠퍼스를 내려다보면서 웬지 서울캠퍼스의 속박을 잊을 수 없었고 공해에 찌든 화석빌 건물들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처지에 대한 반사작용이었을 것이다.

이렇다 할 문화적 배경도 없는 미국인들 앞에 한국의 문화예술을 주는 신선한 충격이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늦게 출발한 미국의 역사가 이제 발길 닿는 곳마다 세계의 예술품을 집결시킨 문화의 전당으로 변하고 있는 것

세계로 가는 강의 - 미국편

역사 만드는 기념비적 감동 주목해야

력은 무엇일까. LA를 비롯하여 뉴욕, 보스턴, 워싱턴 등 발발하는 곳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동서양 예술품의 보고로 바뀌었다. 회화의 미술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극동을 비롯 한 중앙아시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망라되었다. 아마도 짧은 역사를 돈으로써 건역사로 바꾸었다는 인상을 뿌릴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자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대경 문화만을 보고도 허를 내두르는 그대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의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뿌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대학을 비롯하여 각자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건물이 거의 대부분 기부행위에 의한 기념관으로서의 건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도네이션에 의하여 소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심지어 하나의 유물장과 유품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의하여 기증된 것일

생각케 한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뿌리깊은 전통인 불교학과 국문학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안일의 늪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웬 일일까.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 광활한 미국 땅의 여행에서 더욱 강렬해짐은 미국이 지닌 교훈에서 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 우리의 동요에 의하여 학예에 한국학 박물관의 설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제 넘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와같은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의 경우 캠퍼스에 한국문화박물관 하나쯤 세우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도시 경주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의 황금어장이다. 인공교사 중에는 반드시 국어교사가 있기도 하지만, 문화에 대한 연민의 정은 대역에서 보다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가 그 출발

점이 아닌가. 이 여행단을 아름다운 경주캠퍼스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문화박물관이 제격이다. 학생들이 어떻게 열리는 최치원과 이규보를 비롯하여 가깝게는 만해와 춘원, 소월과 육사의 유품원고를 볼 것이며, 또한 이들의 초간본 서적을 어떻게 대할 수 있던 말인가. 그네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자료를 바로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흥분이다.

중국중흥의 길을 열고 아울러 학문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한 방편은 이들 여행단의 순례 코스에 경주캠퍼스가 든다면 그 상승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매학기 박물관의 기획전을 통하여 만해특별전, 춘원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이들을 유치한다면, 앞으로 대두될 대화향과 함께 동국문화의 전통은 물론 대외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문화공간이 개인적 대부와의 기탁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편 좀 우리 동국인 모두가 나서서 증세우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도시 경주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의 황금어장이다. 인공교사 중에는 반드시 국어교사가 있기도 하지만, 문화에 대한 연민의 정은 대역에서 보다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가 그 출발

집이 아닌가. 이 여행단을 아름다운 경주캠퍼스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문화박물관이 제격이다. 학생들이 어떻게 열리는 최치원과 이규보를 비롯하여 가깝게는 만해와 춘원, 소월과 육사의 유품원고를 볼 것이며, 또한 이들의 초간본 서적을 어떻게 대할 수 있던 말인가. 그네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자료를 바로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흥분이다.

중국중흥의 길을 열고 아울러 학문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한 방편은 이들 여행단의 순례 코스에 경주캠퍼스가 든다면 그 상승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매학기 박물관의 기획전을 통하여 만해특별전, 춘원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이들을 유치한다면, 앞으로 대두될 대화향과 함께 동국문화의 전통은 물론 대외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문화공간이 개인적 대부와의 기탁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편 좀 우리 동국인 모두가 나서서 증세우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도시 경주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의 황금어장이다. 인공교사 중에는 반드시 국어교사가 있기도 하지만, 문화에 대한 연민의 정은 대역에서 보다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가 그 출발

달 하나 천강에

'현재집착증'의 증후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인간의 고귀한 행동을 기록하여 보존토록하고, 사악한 언행은 질척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최고 기능"이라고 설파했다.

교훈적 역사의 가장 오래된 개념의 하나다. 역사는, 실로 "시간의 증인"이고 "생물의 안내자"이기도 하다.

오늘에 있어서도 역사의 이와같은 효용성과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 한 분이 떠오른다. 다니엘 [브어스틴교수]이다. 그는 1950년대 반공적 매카시선종이 불태 '미국적 활동조사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을 만큼 허버트 데라와의 젊은 교수 시절 한때 파격적인 이데올로기에 젖기도 했으나, 오늘날 가장 뛰어난 보수적 역사가의 한사람이다. 롤리처상의 수상자이고 여든이 넘은지 오래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브어스틴교수는 "과거란 미래보다 약간 더 확실할 뿐이고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과거도 미래와 같이 항상 변하고 어느때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의 탐구는 이 불확실한 과거에로의 탐험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으로의 탐험의 중국적 목표를 브어스틴교수는 "역사로부터의 교훈"이라고 단언한다. 타키투스의 말이 다시금 상기된다.

브어스틴교수는 지나칠 만큼 미국적 시각으로 미국 역사를 해석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문학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교훈적 경고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제 현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즉, 오늘날 미국문화 경제지역안에 "새로운 것만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현재집착증'(disease of presentism)의 증후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병에 감염되면 고전대신 베스트셀러를, 영웅대신 유명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그 증세는 특히 정치에 있어 민중선동, 개인생활에 있어 소심한 순응주의, 그리고 기업가, 운동선수, 작가, 예술인등의 경우 모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매우 섬찟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이 '현재집착증(現在集着病)'의 증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본다면 지나치게 "세탁민들" 선호하는 중중증세를 우리의 생활문화의 모든 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결코 이와같은 '현재집착증'에 감염되어 있는 한 그러한 사회는 창조력을 창출할 기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역사가란 한결같이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실제보다 더 현명한 척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브어스틴교수의 교훈적 경구한 우리 사회에서도 빈추되어질 수 없으면 한다.

창조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역사가란 한결같이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실제보다 더 현명한 척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브어스틴교수의 교훈적 경구한 우리 사회에서도 빈추되어질 수 없으면 한다.

창조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역사가란 한결같이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실제보다 더 현명한 척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브어스틴교수의 교훈적 경구한 우리 사회에서도 빈추되어질 수 없으면 한다.

창조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역사가란 한결같이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실제보다 더 현명한 척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브어스틴교수의 교훈적 경구한 우리 사회에서도 빈추되어질 수 없으면 한다.

홍영백 문과대 사학과 교수

◆문화제국주의의 의미와 지배양상

문화침투, 신식민지 건설위한 비군사적 수단

I. 전세계적 차원의 문화제국주의

제3세계에 대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문화적 침투와 지배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배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중앙아메리카의 독재정권을 지휘하는 미국의 군사개입에는 여러 형태의 강력한 문화적 침투가 동반된다.

세계에 대한 문화의 지배를 가늠하게 하는 매커니즘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현재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국주의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대중매체에 다양한 문화소비양태를 창출하면서 대중들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침투가 있음, 그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의한 문화적 침투와 지배는 경제적 침투를 넘어 모든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총체적인 통제장치로서 신식민지제국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II. 문화제국주의의 두가지 목표

문화제국주의의 첫번째 목표는 경제적목표로서, 이는 문화상품의 수출이 제조업 상품의 수출을 밀어낼 정도로 자본축적과 전세계적 이윤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93년 폭발적 흥행작중의 하나였던 영화 '탈리단'은 3년의 시간과 2백80억원의 자본을 들여 결국 제작

비의 10배가 넘는 수입을 거두어 들었다.

'유리공원의 경제적 수익은 '탈리단'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에서 공룡이 나타나는 컴퓨터 그래픽 장면은 6분30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짧은 장면을 위해 소요된 제작비용은 총280억에 이르며 결국 '유리공원'은 전세계에서 지금까지만 96천9백여명의 돈을 거둬들였다.

문화제국주의의 두번째 목표는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문화제국주의는 대중들을 문화적 뿌리와 상호유대의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된 정체불명의 '욕구'로 그것들을 대체시킨다. 그 정치적 효과로서 개개인으로 원자화된 대중들은 공동체로부터 이반된 상태로 탈정치화, 탈사회화되어 자신만의 '개인적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세대'에 관한 논의들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III. 문화신민주주의의 새로운 양상들

근대의 문화적 신민주주의는 식민지의 엘리트층을 전향시키고, 수용자 대중을 온갖 대중매체에 의해 '밖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현대에는 진일보한 방식을 취한다. 공격의 대상은 단순히 엘리트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수용자가 된다. 공격의 방향도 '안으로부터'와 '아래로부터'가 추가되었으며, 그 범위에 있어서도 전세계적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성' 또는 '신세대적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적 유대를 공격이 가해지는 것도 근래의 일이다. 이것은 문화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타격대상이 바로 청년층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다. 문화제국주의가 청년층에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 반항이 경제적 정치적 지배형태에 대한 정치적 반항으로 증폭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것이다.

IV. '세계문화'라는 신화

문화의 '세계화' '국제화'는 이 시대의 커다란 속일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세계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미국과 유럽은 일상의 삶을 탈정치화하고 사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문화상품들의 주요한 수출업자가 되었다. '개인적' 신분상승의 이 미의 '자기중심적 삶'에 대한 강조 등은 미국의 문화매체산업이 끊임 없이 대량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이 미지이다.

소위 국제문화란 문화적 테러리즘으로 제3세계 민족들에게 '현대인'이 되도록 편안하고 느슨한 전통의상을 버리고 잘 맞지도, 어울리지

도 않는 불편한, 딱 낀 청바지를 입고 으름장과 부추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문화'라는 신화는 단지 '문화의 복미화-종속화'일 뿐이다.

V. 개인의 삶과 문화제국주의

사회의 변혁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혼란스럽다. 여러렵의 차단막을 제거하고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야 할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이다. 왜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막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에 마저 확실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제도를 '고독감'으로 현실과의 팽팽한 긴장을 대체시키고 세계와 단절돼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예컨대 최근의 자전적인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진다. '개인'으로서의 '나'는 일체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고통한 인간으로 '나'와 '타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유아론(唯我論)에 빠져있다. 이러한 고독감이 낳은 이윤배반적 그리움, 그러나 문체는 이 그리움에 타인과의 융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나'의 고독감을 확대하는 내적 잠지 일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그리움은 결국 정치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규범이 탈로 가지화된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 삶'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조장

<동악알뜰장터>

안녕하십니까?

본 여학생부처장실에서는 재활용기계의 일환으로 필요한 물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동악알뜰장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법제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환경보존운동에 발맞춰서 본교에서도 생활물품교환 행사를 통해, 과소비를 줄이고 절약의 생활화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의 수익금은 동악환경정화를 위해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교내에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동악인의 참여 바랍니다.

<행사안내>

1. 참가대상: 본교 교직원 및 학생
2. 행사기간: 1994.5.23(월) - 5.25(수)
3. 판매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4. 행사장소: 연화원(학생회관 2층)
5. 물품수집기간: 1994.5.11(수) - 5.20(금)
6. 물품수집장소: 여학생부처장실(계산관 1층)

<행사참여방법>

1.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 학생들은 물품에 희망판매가격을 기입한 후에 계산관 1층 여학생부처장실로 갖다주시면 판매해 드립니다.
2. 행사 당일 본인이 물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3. 위탁판매인 경우, 물품이 판매되었을 때 판매금액에서 20%의 수수료로 제외하고 모두 드립니다.
4. 위탁판매인 경우,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원하시면 돌려드리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거해서 자광원동 사회복지단체에 보내고자 합니다. (자광원은 무의탁 노인,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양로원입니다.)
5. 판매 가능한 물품: 비누, 샴푸, 의류 및 장신구, 중고 Computer, 흙이 없는 식기류, 도서, 각종 문구류, 그림, 액자, 우산, 보석함, 가방, 화병, 화장품, 시계, 스텐드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면 모두 가능.

* 자원 봉사자 "환경이"를 구함*

본 여학생부처장실에서는 5월을 맞이하여 환경보존운동의 일환으로 '동악 알뜰 장터'를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연화원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원 봉사 신청을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여학생부처장실(구내전화: 3056)에서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환경이"로 뛰고 싶은 학생들은 소정의 양식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악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소정양식은 여학생부처장실에서 배부됩니다.)

<활동기간 및 내용>

A팀 1) 활동기간: 1994.5.9(월) - 5.22(금)
2) 활동내용: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물품 기증 및 위탁판매를 요청하고 이후 다시 한 번 방문하여 물품을 받아서 계산관 1층 여학생부처장실로 가지고 오는 일

B팀 1) 판매기간: 1994.5.23(월) - 5.25(수)
2) 활동내용: 판매 담당원으로 연화원 매장에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물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일

음악 감상회

'자연, 사랑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란 주제로 4월 12일부터 매주 음악감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판소리와 오케라를 비교 감상하며, 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를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해설: 노영혜 박사(Texas University)

<판소리>

1. 춘향가 어서출도 대목
2. 김지하 오적 - 창작판소리 (임진택 창)

<오페라>

1. Wolfgang Amadeus Mozart Leporello Arias from Don Giovanni (돈 지오반니)
2. Wolfgang Amadeus Mozart Arias from Le nozze di Figaro (회가로의 결혼)

일시: 1994년 5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학생회관 2층 연화원

여성주의 영화 상영

본 여학생부처장실에서는 여성의 현실을 깨닫고 보고 제도속에 가려진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의 본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 상: 본교 남녀 재학생
- 일 시: 1994년 3월 16일 - 6월 8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학생회관 2층 연화원 (다목적 강의실)
- 입장료: 500원
- 주 최: 여학생부처

영화 프로그램

일시	제목
5.25	홍 등
6.1	미망인의 계절
6.8	멜마와 루이스

여학생부처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선거를 평가한다

총대 후보자 선정과정에 개입여부 의혹

회칙 개정 통한 적법한 절차만이 남은 과제

제26대 총대의원회(의장=한장섭·독문4 이하 총대)가 실시한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접선거의 투표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부터 3일간 실시했던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엄한석후보는 총유권자 9천91명중 15.34%인 1천3백95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천1백92표, 반대 1백90표를 얻었다. 이로써 학복위장 재선거는 불가피해졌으며 총대는 "앞으로 학복의 직선제 선거에 관한 한 총운위의 결정을 받아안겠다"라고 밝히며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고있는 상태이다.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듯 이번 총대의 학복위장선거검행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닌다는 여론이 높다.

먼저 지난9일 있던 비상총운위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후보자선정과정에 있어 총대감사국장이 관여하고 자금을 선거공영체로 제공되는 선거운동자금으로 반을 총당하고 나머지는 각출하려했던 것"으

로 전해진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켜야 할 총대가 특정후보의 연계하려 한 데 대한 의혹을 갖게하는 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 정책자료집 목차에 나타나는 '총장선거...'부분이 왜 제26대 중선위에서 나온 자료집목에 실렸는지는 의문도 일고있다.

다음으로 총대는 작년12월 실시했던 학복위장 직선제 관련 총투표를 학생총회권한에 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생회 최고의 결기구라 할 수 있는 학생총회와 총투표의 위상을 같게 본다는 것은 앞으로도 회칙개정을 비롯한 제반의결사항도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5백명의 서명으로 회칙개정을 발의했으나 총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관해 총대는 "작년 12월 총투표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이과대, 경상대, 사범대, 예솔대, 야간강좌학생회는 지난 28-29일 '학생회칙개정후 선거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1천9백69명이 투표, 93.3%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고 문과대 학생회가 실시한 선택투표에서는 219명중 74.4%가 '회칙개정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후의 결사결정'을 찬성했다. 이에앞서 총대는 "어느 한 단과대에서 타 단과 학우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학생과의 한 직원에 따르면 '대표성을 띠는 기구가 아니면 기표소를 내주지 말 것'의 내용으로 학생과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관해 일부에서는 "이는 총투표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회칙개정후 학복위장선거실시를 주장했던 몇몇 단과대와 직선후 선출된 학복위장과의 연석회의속에서 회칙개정을 하고자했던 총대의 논

단에 대한 학우들의 판단은 얼마전 두차례 치러진 선거를 통해 밝혀졌다.

그간 일말의 혼란을 빚었던 학복위 선거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져야한다. 거듭되는 난항속에 어떠한 결론도 합의하지 못했던 총운위, 공약사항만 지키려 앞만보고 달린 상황이 되어버린 총대, 무차별의 선거 조작 구별하지 못하는 차라리 무관심해버린 일부 학생.

학복위에 대한 거듭되는 논쟁은 학내를 들끓게 했던 지난 한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바람이 지배적이다.

직접선거가 먼저라, 회칙을 먼저 개정하느냐는 논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이미 판가름났다.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복위장 선거를 치뤄내야하는 과제만 남았을 뿐이다.

(김소영 기자)

서울캠퍼스 '94 목격 대동마당 개막

'녹두거리 마당', '체험 민중현장' 등 주민,노동자대상 행사돋보여

전교생의 화합의 장 '94목격 대동마당'이 오늘(11일) 오후 4시 개막제를 시작으로 3일간 교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마당의 기조를 '동양 발전의 상을 만든다'로 정하고 '오늘 26일 있을 동국중흥큰잔치의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폐막제가 끝나는 13일 오후에는 학교 주변상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리행사 '녹두거리 마당'이 기획되고 동연에서는 인쇄노동자와 하부를 함께하는 '체험 민중현장'을 준비하는등 대동마당이 학내 구성원들만의 행사에서 그대상을 넓혀가고 있는것이 눈길을 끈다.

동국대 앞에서 녹두서점과 계약을 맺고 도서판매를 실시하며 수익금은 민중연대 기금으로 사용한다. 또, 12, 13일양일간 오후6시에 동국관 앞에서 한총련에 관한 비디옌을 상영하고, 12일 오후 2시에 동국관(M304)에서 초청연사의 국보법, 대회사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행정학과에서는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의 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을 설치하고 원진 노동자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한다.

단체차원의 행사보다 개별 소모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먼저 농생과에서는 사과촌이라는

소모임이 12일 해화관(G203)에서 5·18관련 영화상영을 하고 11~13일 해화관 2층 로비에서 5·18관련 사진 전시회와 자료 전시회를 한다. 또, 소모임 금강초등학교는 11~13일 해화관 2층 로비에서 야생화 및 분재 전시회를 한다.

산림자원학과 소모임 나모회는 11~13일 나모회 사진전을 해화관 2층 로비에서 연다.

농대 실험실은 해화관 2층 로비에서 11~13일까지 각 실험실별로 전시회와 자료 전시회를 한다. 식물 유전학 실험실은 조직배양, 혈액검사, 염색체 관찰에 대해, 동물 분류 생태학(거머리)은 거머의 생태사, 미생물 실험은 '아름다운 포자의 세계'를 부제로 한미경 사진전, 동물실은 'DNA 추출을 통한 재합성의 분자 생물학적 고찰'이라는 부제로 과연 다시 공룡은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각각 전시회를 갖는다.

전자공학과는 동국관 5층로비에서 전자전시회를 열고 화학공학과는 제3회 화공 process전을 원후관 2층 전시관에서 연다.

또 식중공학과에서는 주점과 제빵전시회 판매를 한다.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전 달리는 한총련'이라는 행사를 12일 오후 1시에 서울 캠퍼스에서 갖는다. 또 가정교육과는 대동제 기간동

안 분관 앞에서 우리차 시음회를 연다. 그리고, 국어교육과는 13일 학림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다.

오늘(11일) 여학 생 휴게실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는 로빙화를 상영한다.

'한반의 노래자랑'행사에는 노래 경연대회, 매주 팔대로 빨리 마시기, 제기차기, 우유(1,000ml) 빨리 마시기, 깃발들기등이 있다.

또 조국과 정훈의 축하공연이 오는 12일 오후 6시에 해화관앞에서 열린다.

경제학과에서는 주점을 야간강좌 학술동아리 '여명'에서는 창립 6주년 기념을 겸해 오늘(11일) 오후 5시 동국관앞에서 고사및 필제대대회를 연다.

'대동제를 공동체 문화 형성과 동아리 상반기 사업 총화의 장으로'라는 기조를 가지고 체력 민중 현장과 동아리인, 노동자 연대 한마당을 오는 12일에 연다.

체력 민중 현장은 인쇄노조에 소속된 공장에 94세대기가 방문을 하는 행사이고 이날 방문을 마친후 인쇄노조사람들과 동아리인이 함께하는 동아리인, 노동자 연대 한마당이 열린다.

각 동아리 행사는 다음과 같다.

△민중사랑: 원진 주점 △무스철학 연구회: 포장마차 △무선통신 연

구회: Fox-hunting(다향관앞) △영어 연구회: 커버 전시회(백상탑) △자연과학 연구회: 로켓트 발사 △통계조사 연구회: 의식조사 전시회(다향관 계사관) △컴퓨터 연구회: 전시회(계사관) △소소클럽: 사주 카운셀링 △동국 문화회: 문학의 밤(연화원) △동그라미: 사진전(도서관 앞) △만화열: 만화전시회(불상주변) △불교 학생회: 야외 연등원(불상앞) △효우회: 주점 △E.L.F, P.T.P. 젊은 세이웃: 공동 주점 △기우회: 총장배 바둑대회 △선무부: 연무 시범 △아마추어 농구부: 농구대회개최 △테니스 학생회: 테니스대회개최.

예술대 발전추진위 발족 "학원자주화에 앞장설 터"

예술대 학생회(회장=이종필·미숙)는 오는 13일 스승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술대 교수들 9월에 있을 중구예술제의 준비위원으로 추대하고 '예술대 발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예술대 한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원자주화투쟁을 총괄하고 학원자주화를 위한 정신과 활동을 중구예술제로 이어 가기 위해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일간지 '자연계열 순위' 보도 논란

기초과학 연구소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94년도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가 지난 6일 교육부 명의의 자연대 및 이과대 연구역량 평가보고서로 발표된 후 순위까지 매겨져 발표된 바에 대해 해당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발표의 근거는 각 대학의 연구소로 지급되는 연구비중 기초과학 육성연구비가 30여억원에서 60여억원으로 증가됨 이를 각 대학 연구소로 분배기 위해 서울대학 소재 기초과학종합연구소가 각 대학

연구소로 현황(인력, 시설,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지난 93년 9월 본교 자연과학연구소(소장=민태진·화학)가 작성해 기초과학 종합연구소로 보내 자료로 알려졌다.

이과대학장 민태진 교수는 "연구비 분배를 한다고 해서 자연과학연구소 현황과 자료를 보냈는데, 이를 가지고 각 대학 자연대·이과대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일간지에 보도 내용이 이과대 평가가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소 평가'라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개방화 시대의...'란 주제로

불기 253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문화연구원(원장=서윤길·불교학)에서는 불교행사의 일환으로 '개방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동국관(L401)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방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 민족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개방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

발표자 및 제목은 △민족문화의 개념과 유형(임동화·사학) △불교와 민족문화의 사적 조영(김영태·불교학) △일본문화와 한국문화의 갈등과 진로(공정원·조선일보 논설위원)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마찰과 조화(이길용·사학)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불교의 역할(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장)이고, 목정배(불교학), 권기종(불교학), 한보광(선학), 장한기(연극영화) 정병호(국민윤리학)교수가 참석하여 위 주제에 관해 토론하게 된다.

불교도 주간 다양한 행사 기획

오는 14일 제등행렬-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정현·인철)는 불교도 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9일 오후 6시 본관앞에서 불교도 주간 선포마당을 가졌다.

불교도 선포마당에 대해 불교대 학생회측은 "중단투쟁에 모이었던 불교대 단결투쟁의 모범들을 학생회 중심으로 묶어 세우고 선·후배가 함께 웃고 부대끼는 속에서 동국발전과 불교자주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는 데 취지를 둔다"고 밝혔다.

선포마당에 이어 노래대 '햇빛한 줍'의 공연이 있었고 '새내기 뽀내기 한마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한 불교대인 한마당이 오후 1시부터 열린다.

또한 14일에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이 있을 예정이다.

과와 소모임별로 행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학과-불구용품판매·불화전시회 10~13일(도서관 앞) △불교학과-연등제자·카드판매 9~14(불상 앞) △보살사상연구회-법난사진 전시회·불교관련 만화전시 9~13일(본관앞) △진전회-우리차전시 및 판매 9일, 불교수행법전시 9~13일(불상앞).

총여 대토론회 개최

출범식 맞아 소강당에서

제9대 총여학생회(회장=김령은·사회4)는 출범식맞이 대토론회를 오는 13일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총여학생회 집행부소속에 이은 2부 순서에는 올해 좋은 아버지상을 수상한 서재균의 '나의 연애, 당신의 결혼'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게 된다.

강연후에는 강연자 서재균씨와 더불어 조은(사회학)교수, 동문1인, 재학생 1인이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 불교대인 한마당이 오후 1시부터 열린다.

또한 14일에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이 있을 예정이다.

과와 소모임별로 행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학과-불구용품판매·불화전시회 10~13일(도서관 앞) △불교학과-연등제자·카드판매 9~14(불상 앞) △보살사상연구회-법난사진 전시회·불교관련 만화전시 9~13일(본관앞) △진전회-우리차전시 및 판매 9일, 불교수행법전시 9~13일(불상앞).

학/전/무/의

무법자들

○...봄이 되어 배드민턴이나 축구를 즐기는 학우들이 많아지면서 이의와함께 거리의 무법자들(?)이 나타났다는데.

다들아닌 거리에서 야구연습이나 유투볼 차기등을 하는 학우들이라고.

이들은 주차장이나 길에서 다른 많은 학우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그지없고.

이에 한 학우 "차도 많이 피해야 하는데 길에서 운동을 하는 학우들이 너무 많아 길이 미로처럼 되어 버렸다"고 일침.

기특한(?) 불심

○...며칠전 공휴일로 쉬게된 날에 신성스러운악장 정각원의 분위기가 남대문시장의 그것과 흡사했다던데.

무슨무슨항우회라는 사람들이 대낮부터 큰 음악에, 술에, 춤에 완전히 혼돈 그자체였다는데.

아무리 항우회라지만 너무 시끄러워 지나가는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좀 이른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서 춤과 노래로써 부처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다니 참 기특하구만."

중장비개론

○...며칠전 동국관에서 수업 받은 학우들은 수업을 받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인 즉, 수업하는 동안에 옆에서 들리는 요란한 중장비 소리때문에 교수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이에 수업을 받던 한 학우는 "수업 들으려 온건지 중장비 소리 들으려 온건지 구별이 안되네요"라며 비꼬기도.

흔들리는 교단

○...교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종합감의실이 많이 우려있는 원효관 감의실 교탁상대가 물망하디는데.

얼마전 즉, 감의실 교탁이 태반은 부서졌는가하면 한 감의실에서 두개가 물러 있기도하고 어떤곳은 아예없기도 하다고.

신성한 교단을 대표하는 교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교탁을 그 지경으로 만드는 학우들 의식도 문제지만 학교측의 투철한 물자절약 정신이 한 몫 하나보죠"

제1회 중구 예술제(가칭) 기획광고

"동국아, 명진아 힘들지?"



첫번째

◇대동제를 회고하며 판극경연대회 참가해 “풍물 선택의 계기”

작년 대동제 단과대 풍물패 연합(이하 대동연 협 동맹)에서 ‘풍물소리 한마당’이라는 판극경연대회를 열었다. 그때 문과대에서는 더이상 과거리 지지부진하게 행동할 수 없다. 우리도 문과연을 건설해 타단 대학처럼 크게 활동해 보자하여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국민윤리학과가 모여 ‘문과대 대동단결 곳’을 만들어 출전했다.

연습과정은 참 힘들었다. 몇안되는 과풍물패도 모이기가 힘들데 네과가 모였으니 5시 연습이 6시 연습이 되기 일쑤였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걸러서 나오니 나는 과 학회에 여러 가지가 있어 연습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었다. 매번 회회 선배들에게 “연습이 있는데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정해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단 남산을 선남 고전분과관은 예외였다. “내가 맡은 부분을 하고 가라” 별 수 없지 않나, 대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명진관(A101)강의실을 울리고, 현화가(梨花歌)를 더듬더듬 설명하는 나의 가슴을 두들기고, 대답하다 보니 자꾸 막히고 어떻게 끝났는지 모른다. 잠

늦게 나가 연습했다. 나중에 연습이 끝나고 평가할때 “아까 처럼 풍물은 나를 부르던 소리였습니다.”했더니 사람들이 “역시 국문과”를 연발했다.

대회 당일 과에서는 ‘국문인의 날’이라하여 다 모여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술 사달라고 찾아왔지 여리고수들 앞에서 뿔것을 예상하니 가슴도 떨리지 아주 총체적 난국이였다. 과 길들이를 가법게 뛰고 선 후배들과 모여 사이좋게 놓고 있는 걸 부럽게 쳐다보다 만해광장으로 내려와서 판극을 벌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2등이었다. 머릿수도 제일 많고 진(陣)도 다양했는데, 사범대의 ‘날 나리 밤보’에 밀린 것이다. 누가 판극에서 트로트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었는가? 게다가 잡색하던 여학우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던지, 더불어 심사위원 중 2명이 사범대 출신이었다.

작년 대동제는 나를 선택의 바다에 밀어 넣었고 난 풍물이라는 배를 탔다. 올해에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김 일 환
(문과대 국문과)

동 국 기 네 스 백제풍 통일신라 작품



8 납석삼존불비상 (蠟石三尊佛碑傷)

지정번호: 보물 제742호
시 대: 통일신라
크 기: 높이 32.5cm
재 질: 납석
소장처: 본교 박물관

비상은 비석형의 돌에 부조나 조각으로 조각한 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석비에 불상을 새긴 불비상이 흔하지는 않는데, 1960~61년 사이에 충남 연기군(凝岐郡) 비암사(碑巖寺) 등지에서 모두 7구의 비상이 수습되었다. 이들은 출토지가 모두 연기지방이라는 점과 재질이 흑회색의 납석이라는 점, 그리고 조각양식 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이 삼존불비상 역시 일련의 연기비상 중 하나로 원래 출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발견 당시는 연기군과 인접한 공주군 정안면 평정리 소재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장방형 돌의 윗부분과 높게 부조된 본존불의 얼굴 일부가 깨졌으나 대체로 보존이 좋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도금을 하여 금동불(鎏銅佛)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한 본존불은 불륨이 별로 없는 긴 상체에 어깨도 움츠러든 편이지만, 얼굴에 표현된 고졸한 미소와 시무와 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수인(手印)을 지은 자연스러운 손모양, 두렵고 특중한 불의(佛衣)와 그 착의법 등에서 백제의 조각 작품이 짙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화좌 위에 서있는 보살상의 X자형으로 교차하는 천의(天衣), 광배와 대좌에 표현된 뾰족한 연화문의 모습 등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불상 표현 양식이 많이 남아 있는 통일신라 초기의 작품이다.

예일 졸라의 원작 ‘제르미날’은 단어의 뜻 그대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공화력에서 3월22일부터 4월19일까지의 ‘썩트는 날’을 의미한다.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이 표방하듯 1880년대 프랑스 북부지방의 탄광지대는 영화속에서 사실적으로 되살아나 마치 지금의 현실을 마주대하는 듯이 박진감있게 그려진다.

이 영화속에서 인간은 철저히 환경의 산물이며 그 현실의 지배력에 복종되어 있다. 이들 중속된 인간-노동자들은 이기적으로 삼의 풍요를 누리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

박 도 화
(본교 박물관 연구원)

영학의 퍼펙트스 클로드 베리 ‘제르미날’ UR로 부활한 제국주의에 대응한 영화



◇1880년 대 프랑스 북부지방의 탄광지대를 사실적으로 되살린 영화 ‘제르미날’은 상업오락의 풍속 속에서 진지한 주제물을 다뤄 프랑스가 문화선진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서구에서는 문화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 ‘제르미날’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수가 없다.

요즘 같은 상업오락의 풍속속에서 ‘제르미날’같은 진지하고 재치비도 많이 드는 그런 영화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적 유산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일 졸라의 원작 ‘제르미날’은 단어의 뜻 그대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공화력에서 3월22일부터 4월19일까지의 ‘썩트는 날’을 의미한다.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이 표방하듯 1880년대 프랑스 북부지방의 탄광지대는 영화속에서 사실적으로 되살아나 마치 지금의 현실을 마주대하는 듯이 박진감있게 그려진다.

이 영화속에서 인간은 철저히 환경의 산물이며 그 현실의 지배력에 복종되어 있다. 이들 중속된 인간-노동자들은 이기적으로 삼의 풍요를 누리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

가 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운동의 미숙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 영화는 인간의 평등함이 실현되는 거대한 장정의 그 첫 ‘세부림’에 해당한다. 영화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실패로 끝난 파업과 시위의 첫 단계를 그린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다. 영화는 노동자 계급을 일반적으로 우상화하거나 자본가들을 무조건 깎아내리지 않는다. 노동-자본의 관계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착취의 모순을 아무 선입관 없이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자신이 놓여진 환경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다른 환경의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다. 굶주리고 얼붙은 노동자에게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먹을 것과 옷을 던져준다. 복권에 당첨된 어떤 노동자는 그 돈을 등장에 넣고 일생 일 안하고 혼자 잘 살고 싶다고 말한다. 부자는 노동자를 단지 동정하고, 노동자는 자기만 부자가 되어 편안히 살기를 꿈꾼다.

노동자들의 혁명은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환경에서 어쩔수 없이 일방적인, 이기적인 생각만을 할수 밖에 없게 된 그 제도와 사회의 모순에 대한 혁명인 것이다. 인간이 완전히 자기 일로만 소외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지 못하게 된 그 환경을 불만하는 것이다.

1994년도를 여는 시점에서 프랑스는 왜 이런 ‘공동체의식’을 추구하는 영화를 만들었을까. UR이후로 제국주의는 다시 부활하였다. 과거에 제국주의자였던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그 폐해를 정확히 알고있다. 미국/일본의 제국주의가 프랑스를 침공해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들은 영화로 그들에게 응징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여 불기하라. 자본가여 각성하라!’

정 제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연영과 협의제 주관 ‘젊은 연극제’

“연극전공 학생들의 순수한 잔치”



제2회 젊은연극제가 지난 9일 막이 올랐고 오늘(11일)은 본교 연영과에서 알프스 찰스 트르의 ‘안나 클라이버’ 무대에 올랐다.

젊은 연극제는 본교,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 청주대, 경성대등 여섯개 학교의 연영과 협의제가 주관하는 연극전공 학생들의 순수한 잔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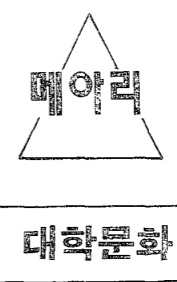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연극제답게 행사의 의의도 다양하다. 연극공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활약하게 될 극장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학구적이고 실험적인 연극 예술인질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 관객들에게 공연예술의 이해를 도모하여 잠재적 연극인재를 발굴하는 등...

현재까지 젊은 연극제에 참여하는 학교는 여섯개이지만 전국 연극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연례행사가 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행사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1개교당 2일, 3회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작품의 종류는 창작극, 번안극, 번역극 중 택일하는 것으로 재학생 창작극을 권장하고 있다.

(문화부)



▲현대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자칫 대량생산된 오락이고 에너지의 분출과 소비주의적 문화라고만 생각되기 쉬운 실정이다. 이는 우리를 스스로가 내린 정의라기 보다 문화 향유의 주체들이라 자부하는 맥없이 뱉어진 사람들의 이해 포장되어진 것이라. 물론 대중문화의 오락적이고 소비적인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서 대중문화는 같이 놓고 대화함으로써 나와 공동체의 생명과 자기성찰, 그리고 또다른 미래의 생상을 위한 과정이라 말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 싶다. ▲5월의 캠퍼스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졸업생들의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들이나 대중제 공연을 위해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들, 주막을 짓기 위한 땅지질로 발표하는 모습들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학생회관 증축과 노천극장 완공을 위한 공사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일련의 자연과학관 완공과 학생회관 증축, 노천극장 건립들은 15년 역사를 간직한 경주캠퍼스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그간 학생회측과 학교측과의 잦은 마찰과 대립이 합의로 이룩된 결과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들을 둘러싼 일반학우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자연과학관의 미관문제라든지 노천극장의 위치, 형태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등등, 이는 상충간의 대립의 목소리란 높았을뿐 전체 경주캠퍼스인들의 의견을 모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과 하나됨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학행가 인정제를 앞두고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대학의 자연과학 연구역량 평가와 이에따른 대학별 순위 발표는 이런 심정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경쟁력에서 뒤지는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오늘부터 대중제가 개막된다. 대학문화의 한창태인 대중제가 대학현실을 외면한 오락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맥없이 뱉어진 사람들의 소비적문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내외적으로 처해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이번 대중제를 다 시험한 바라보게 하고 있다. 구성원간의 상호대화와 공동체 의식 속에서 미래의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재)

범퍼링이

최 경 인 (46)

순수야! 연극야!

저 할까요? 아니!

애 불렀죠?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할텐데...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국제금융시대 — 누가 그 침범이 될 것인가?

보험에서 국제금융서비스까지 국제화를 선도하는 삼성생명 — 국내외의 금융회사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 21세기의 국제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글쎄... 말 그대로 보험회사잖지 뭐?” “크고 해도 어디 은행만 하겠어?”

이렇듯 알려진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이 더 많은 삼성생명 — 하지만 6년 연속 금공유업계 매출 1위, 국내최대의 기관투자자, 세계 각지의 현지법인을 통한 다양한 투융자사업에 이르기까지 — 삼성생명의 가려진 부분은 알려진 부분보다 훨씬 큼니다.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개방의 물결에 당당히 맞서가는 삼성생명 — 21세기 국제금융전문가의 꿈을 이제 이곳에서 꾀워 보십시오.

삼성생명 국제사업부 오종섭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